# 교육·인력 잇는 돌봄체계 마련해야

재난시대와 불교

## 전문가 제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수행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재난 현장 지원을 위해선 사전 교육과 전문 인력 연결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진은 조계종이 2017년 4월 10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목포 신항을 방문한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

**재난 현장서 확인한 불교계 대응 아쉬움**
**고통에 섣부른 해석 대신 '경청' 자세**
**사찰 활용해 피해자 · 봉사자 마음 돌봄**
**지속가능한 불교 지원 체계 마련 필요**

2014년 4월, 나는 화면 속 세월호의 뱃머리가 바다 위로 조금 남아 있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 일상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배는 가라앉고, 시간이 흘러도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답답함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 뒤에는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다.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손길을 보탤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혼자 현장에 갈 엄두도 용기도 나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불교계도 팽목항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향했다. 심리상담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스에 자원봉사를 신청해 스님들과 조를 짜 목탁을 치며 염불하는 일을 맡게 됐다. 희생자의 평안을 빌고 가족들의 곁에 함께하는 일도 소중한 역할이다. 다만 가족들이 원할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찾지 못했다.

그때 현장에서 천주교 봉사자들이 수습된 희생자의 몸을 정성껏 닦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인을 존엄하게 모시고 가족 곁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적극적인 돌봄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며 깊이 감동했다.

얼마 전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유연 스님에게 당시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은 홀로 팽목항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한다. 시신 확인실 앞에서 경전을 읽고 기도하며 주변의 휴지를 주웠다고 한다. 지나가던 가족이 스님을 붙잡고 울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었고 함께 걷기도 했다. 훗날에도 현장을 찾아 기도하고, 광화문에서는 유가족 곁에 앉아 있거나 물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나 역시 광화문 추모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그때마다 혼자였다. 여럿이 함께 와서 추모하는 수녀님들을 보면 부러웠다. 그럴 때 서로 연결됐더라면 조금 더 든든하게 함께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팽목항 인근 사찰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전국에서 온 비구니 스님들을 만났다. 오랫동안 현장을 지키는 이도, 나처럼 잠시 다녀가는 이도 있었다. 밤늦도록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수행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현장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불교의 자비는 어떻게 닿을 수 있는가.

그때부터 나의 질문은 '현장에 가고 싶은 스님은 무엇을 어디에서 배우고, 누구와 연결돼야 하는가'였다. 승려 교육 과정에서 재난 발생 시 맡을 수 있는 역할과 피해자의 권리, 자원봉사의 원칙, 종단 안팎의 협력 기관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 누군가는 현장 지원을, 누군가는 오랜 애도와 추모를, 또 누군가는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은 반복되고 고통은 오래간다. 재난 지원은 각자의 원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돌봄을 오래 이어가기도 어렵다.

이 질문을 다시 떠올린 것은 2017년 포항 지진 때였다. 당시 나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강의하고 있었다. 원불교에서 심리 지원을 맡은 교무님이 전화해 현장에서 활동할 심리상담 인력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 수강생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중 몇 사람이 원불교가 운영하는 심리상담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작은 연결이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셈이다.

조계종 긴급구호단도 상담 부스를 열어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있었다. 당시 조계종 부스 담당자에게도 연락이 왔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조만간 만나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현장에서 애쓴 이들의 노력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난이 지나간 뒤에도 현장의 경험과 전문 인력을 연결하고 축적할 수는 없을까. 팽목항에서부터 품어 온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을 만나고 이동하는 일조차 어려웠던 시기, 한국심리학회는 전문가들을 연결해 전화 상담으로 심리 지원을 했다. 나도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무료 전화 상담에 참여했다. 현장에 직접 갈 수는 없어도 조직이 사람과 전문성을 연결하면 마음을 돌볼 길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했다.

세월호와 포항 지진, 코로나19를 거치며 확인한 것은 분명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사람을 잇는 일은 개인의 의지에만 기대서는 오래갈 수 없다. 평소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역할을 정해 두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의 필요에 맞춰 인력을 연결하고, 지원이 끝난 뒤에는 경험을 돌아보며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명진 스님의 영결식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추도사를 들었다. 명진 스님은 유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곁을 지켰으며, 필요한 재봉틀과 청소기 등을 챙겨 주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팽목항으로 향했던 2014년을 돌아보았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심리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그 필요에 응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재난 직후에는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물과 식사,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돕는 일이 먼저다.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재촉하거나 울음을 멈추라고 해서도 안 된다.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반응을 수행이 부족한 탓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피려면 안전과 신뢰, 시간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원할 때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야 한다.

재난 앞에서 불자들이 특히 삼가야 할 말이 있다.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에게는 이런 말은 슬픔에 죄책감까지 더할 수 있다. 나 역시 공부하며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을 때 "스님 복이 그거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미 버거운 사람에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다.

〈쌍윳따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느낌을 과거 업의 결과로 돌리는 견해를 바로잡는다. 몸의 상태와 계절, 불운, 외부의 가해, 업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이 재난의 원인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러 발생 조건 가운데 업이 하나로 언급된다고 해서 고통의 일정 부분만 업 때문이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눈앞의 고통을 전생의 업 탓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피해자가 먼저 업이나 인과를 물을 때도 불행의 원인을 아는 듯 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실 만큼 마음이 무거우시군요"라며 그 심정을 헤아리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과법은 타인의 불행에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슬픔에는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가족은 울고, 어떤 가족은 분노하며, 또 어떤 가족은 당장 해야 할 일을 담담히 처리한다. 그들에게 "마음을 내려놓으라"거나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고 재촉하기보다 각자가 겪는 마음을 살펴야 한다.

재난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사람과 구조·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도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이 흐른 뒤 일상의 작은 일조차 버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돌봄은 몸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안전한 곳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몸을 돌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 것이다. 잠시 쉴 곳을 마련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부터 시도해 보는 것이다.

불교계는 이러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이미 갖추고 있다. 사찰의 숲길을 걸으며 쉬고, 사찰음식으로 몸을 돌보고, 따뜻한 방에서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다. 원하는 사람은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돌봄을 개인의 인연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의 재난 지원 체계와 연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준비된 사찰이나 불교계 운영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을 경험한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면 사찰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사찰에서는 숙박과 식사, 휴식 환경을 제공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난 현장에서 봉사한 사람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 재난 지원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신청하면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봉사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구체적인 돌봄으로 이어진다면, 봉사자들이 다음에도 건강하게 현장에 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목탁을 치며 서 있던 팽목항을 떠올린다.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재봉틀이, 또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불자의 마음 돌봄은 자신이나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대하거나 섣불리 해석하지 않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돌봄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함께 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 앞에서 불교의 자비가 오래도록 힘을 발휘하려면,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준비와 연결이 필요하다.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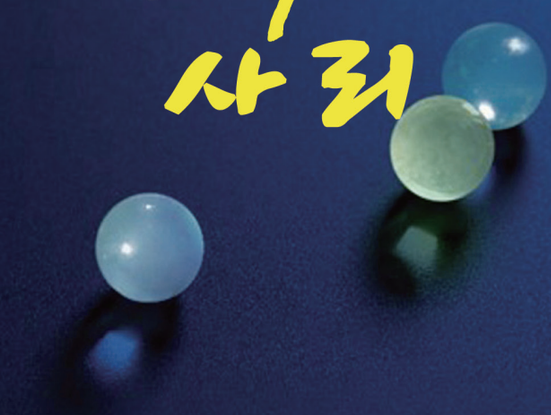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